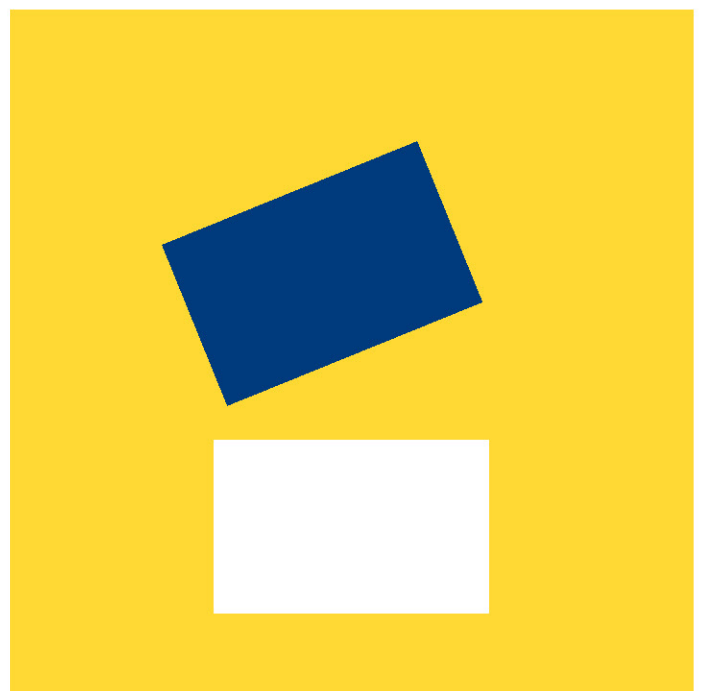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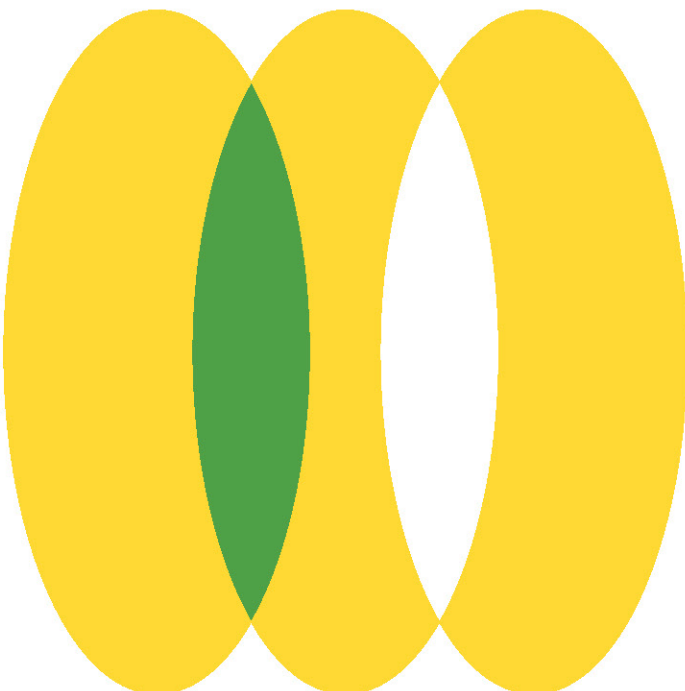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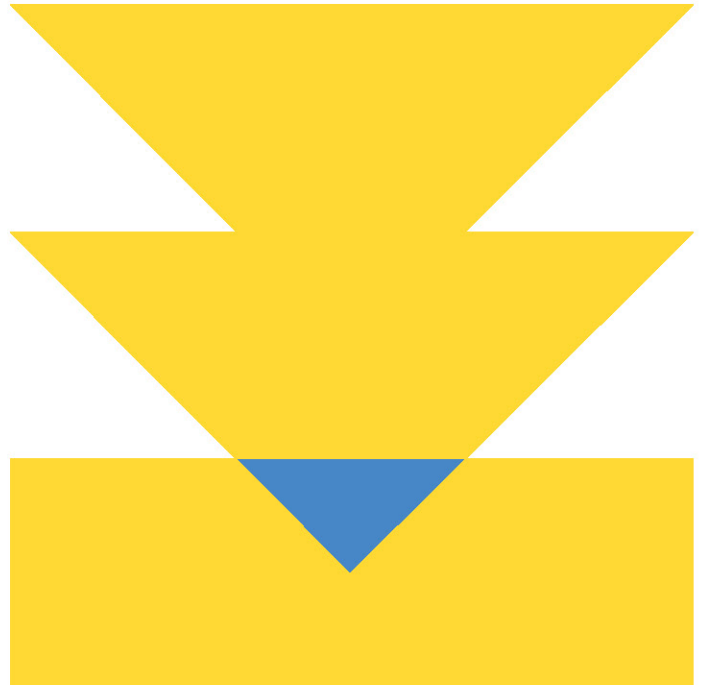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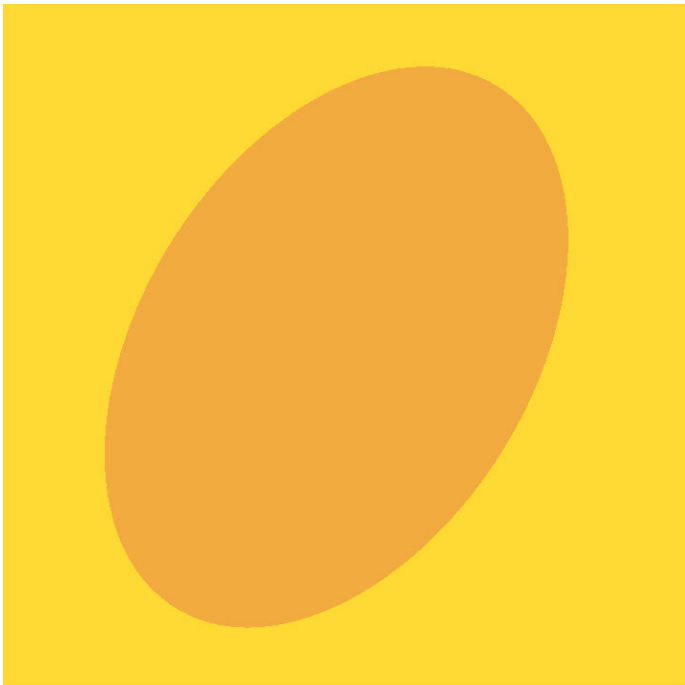


2021년 1호

해외 문화예술교육 기획리포트

문화다양성과 문화예술교육의 미묘한 관계



2021년 1호

해외 문화예술교육 기획리포트

문화다양성과 문화예술교육의 미묘한 관계

편집장의 글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 다양성은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 내용이 다. 아니, 문화 다양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근대적 질서와 시선을 가진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가 해체되는 오늘을 힘겹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네 편의 글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 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최혜자), 문화 다양성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리는 지난한 과정의 글(김호신), 문화 다양성 관점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실험의 글(박영희), 문화 다양성이 녹아있는 보편교육으로의 글(목수정)을 실고 있다.

이번 해외 기획 리포트를 통해 독자에게 “콘텐츠로서의 문화 다양성”이 아닌 “관점과 태도로서의 문화 다양성”에 대해 함께 궁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편집장 최혜자

목 차

문화 다양성을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의 세 가지 질문 _ 최혜자	7
문화 다양성이 일상인 캐나다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열어가는 세계 _ 김호신	11
다양성과 포용성 기반 호주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새로운 이슈 _ 박영희	15
프랑스의 예술사 교육 - 역사와 예술의 입체적 결합 _ 목수정	19

문화 다양성을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의 세 가지 질문

최혜자

어느 날, 문화 다양성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여러 가지 질문을 수반한다. 우선, “문화예술교육이 왜 문화 다양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배경에 관한 질문이 맨 앞에 설 것이다. 둘째, “문화 다양성이 무엇인가?”라는 대상에 관한 질문이 필요하다. 두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세 번째, 질문이 성립되는데,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답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문화 다양성 정책 초기, 이 세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래서 현장은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었는데, 동남아 출신 이주민을 모아서 한국에 관한 수업을 하거나 반대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초보적인 정보를 가르치는 활동으로 접근하였다. 물론, 다른 문화에 관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시 문화 다양성에 관한 기본 사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분야는 우리나라보다 문화 다양성 과제를 먼저 실천한 나라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제의식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다른 나라의 접근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일이다.

첫 번째 질문, 문화예술교육이 왜 문화 다양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가?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 다양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술 자체가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문화예술교육이 그러한 과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굳이 문화예술교육에서 별도의 이슈로 담아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이것에 관한 대답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문화 다양성 이슈는 예술이 가진 특성이나 문화예술교육의 역할로 해결되지 않는 거

대한 사회문화적인 구조 문제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는 “사회는 특정 권력의 시선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현대사회 사유는 이러한 획일적인 권위와 폭력적인 체계의 근원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내 개인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배제하는 사회체계와 문화 구조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2001년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 이후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2001년 문화 다양성 선언의 상징 이미지
출처 : 유네스코 위원회 홈페이지

이러한 획일성과 폭력성은 선량하고 가늠할 마음가짐으로만 극복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날 차이에 관한 혐오, 갈등, 폭력 등의 현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뿌리 깊은 관념과 관계가 있으며, 사회 구조적인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해야 하며,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단지 다양한 체험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언어, 상징, 이미지를 새롭게 생산해야 하며, 소통방식 또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 근대적 질서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 문제가 그토록 어려우며, 따라서 예술가나 문화예술교육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영국의 경우, 2000년 인권법(Human Rights Act)의 발효 이후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에 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영국예술교육연맹(Cultural Learning Alliance)은 2020년 7월 반인종주의 예술교육 행동 그룹(Anti-Racist Art Education Action (ARAEA) Group)의 활동을 지원하여 반인종주의 예술교육의 체크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이것을 보면,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기획자의 습관, 인식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질문
다양성&소속성 (Diversity & Belonging)	당신의 커리큘럼에는 인종적으로 다양한 예술가, 제작자, 디자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커리큘럼에 사용하는 문화, 제작자, 미술품, 물건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까?
	당신의 커리큘럼은 지역 사회의 예술가, 제작자, 디자이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문화자본 (Cultural Capital)	당신의 커리큘럼은 이종 문화유산의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언급하나요?
	당신의 커리큘럼은 문화자본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비판성 (Criticality)	당신의 커리큘럼은 과거나 현대 예술과 문화를 통해 주변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하나요?
	당신의 커리큘럼은 인종과 민족 정체성에 관하여 토론, 질문,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당신의 커리큘럼은 인종과 인종 관계 이해와 비판적 의식을 발달시키는 계획을 세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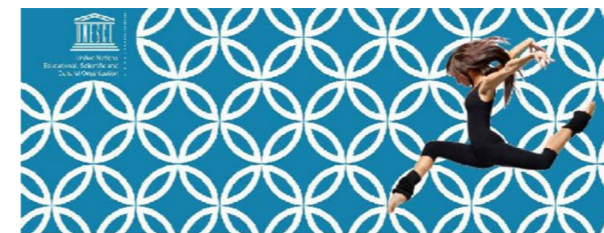
영국예술교육연맹의 반인종주의 예술교육 커리큘럼 체크리스트
출처 : <https://www.nsead.org/community-activism/governance-opportunities/araea-group/>

두 번째 질문, 문화 다양성이 무엇인가?

문화 다양성은 인류학적 성과 즉, 모든 개인과 집단의 문화는 상대적이라는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한 개념이다. 개인 혹은 집단이 개인의 삶과 특정한 역사 속에서 체득한 문화는 정체성의 표현이며, 지속가능한 삶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적 질서와 규칙을 거부하고 개개인의 삶과 가치를 발견한 결과이며, 1960-7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탈근대적 사회운동의 결과이다. 이러한 발견과 성과는 기술혁신과 함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회의 변화는 이러한 사유의 힘에 기초하고 있다.

2001년 문화 다양성 선언 이후, 2005년 유네스코 총회는 문화 다양성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이 국제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2014년 문화 다양성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년 문화 다양성 국제 협약의 상징 이미지
출처 : 유네스코 위원회 홈페이지

이 협약은 문화 다양성 실현을 위해 국가가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4년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여 각국의 문화정책의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예술 표현의 자유와 이 표현으로서 창작활동의 자유 증진(예술가의 보호와 활동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자 스스로 사유와 감각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다양한 개인의 표현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바로 새로운 표현언어, 상징, 이미지의 출현과 함께, 개인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표현될 때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며,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감각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정책목표	주요 의제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 지원	① 문화 다양성 정책 개발과 실현 효과 증진 ② 미래지향적 공공 미디어 정책 개발 ③ 공공-민간-시민 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 ④ 시민 사회의 문화 거버넌스 참여와 지원
문화 상품-서비스의 균형적인 흐름과 예술가/문화전문가 이동성 증대	⑤ 예술가들의 교류 플랫폼 증대 ⑥ 장벽 제거, 우대, 할당제 등 무역 차별보완 ⑦ 국가 무역에서의 문화적 조약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에 문화 통합	⑧ 문화의 중요성 증대와 문화예술 환경혁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	⑨ 문화예술 분야 성 격차 해소와 여성 활동 보장 ⑩ 예술가 보호와 예술표현의 자유 강화

유네스코의 문화정책 권고사항
출처 : 유네스코 보고서 '문화정책의 재구성', 2018년

세 번째 질문,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답을 것인가?

그런데도 문화 다양성을 문화예술교육에서 구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편가치로서의 문화 다양성 감수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문화 다양성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며, 소위 세계의 동시대적인 과제이다.

2000년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출현은 '예술'과 그것의 사회적 역할로서 '교육내용과 방식'에 관한 고민을 낳게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에 비해 광의의 범위를 가진 '문화'라는 전혀 다른 층위에서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 다양성 정책에 이르러 '예술'은 '표현'이라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고, 표현의 다양성은 마침내 삶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문화 다양성은 기존의 문화예술정책으로 포괄되지 않는 광범위한 문화영역을 다루게 하고, 이는 맥락과 시대를 읽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 사업으로 진행된 문화 다양성 연수 현장
제공 : 문화디자인자리

문화 다양성은 다른 나라의 정책이나 사례를 따라 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가치만 있을 뿐, 나라마다 문화적 토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종 문제나 종교 갈등이 심각한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른 사회문화적 토양을 가지고 있다. 이념갈등과 빈부갈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던 우리나라는 최근 남녀갈등이나 세대 갈등의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 다양성은 동남아 배경의 이주민의 문제라는 근거 없는 예단과 달리,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문화 다양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고민을 이어가 보자.

그러므로 문화 다양성 이슈는 그저 문화 다양성 콘텐츠를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술을 포함한 표현의 양식이 인간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다양함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까지 요구하는 세계관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문화 다양성 정책이 가장 먼저 접근한 영역이 문화예술교육 영역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관념대로 문화 다양성을 콘텐츠로 접근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이 인권교육이나 이주민 이해 교육으로 바뀌었다. 이는 문화 다양성을 콘텐츠로 인식하거나 인지 학습으로 접근한 데 원인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장되어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지양해야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실천의 여건이 마련된 신호이다. 문화 다양성 관점은 인지에 억압된 감각의 해방을 통해 표현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사회구조를 인식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구분	오작동 되는 문화 다양성 교육	새로운 문화 다양성 교육
활동 내용	인종, 지역, 나이 등 콘텐츠로 접근	새로운 가치를 담는 맥락 간의 연계
활동 방식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 인지 학습	인식과 감각의 다면적 접근

문화 다양성 교육의 새로운 접근

한국적 토양에서의 문화 다양성

최혜자

최혜자는 17년간의 지역 활동 이후 군포문화센터 관장, 한국 문화정책연구소 기획실장을 거쳐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로 재직 중이다. 산만한 관심사로 역사, 예술경영, 비교문화를 전공하였으며, 문화 다양성에 꽂혀 캐나다에서 2년간 객원 연구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 문화 다양성, 젠더,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도시, 예술 혁신을 관심사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실행을 하고 있으며, 가끔은 꽃히는 대로 막 살기도 한다.

문화 다양성이 일상인 캐나다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열어나가는 세계

김효신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문화 다양성 배경과 환경

캐나다는 미국이나 영국의 문화 통합정책과 다른 다문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캐나다는 개별적 출신 국가나 문화적 민족적 특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선택했고, 1988년 다문화 법을 제정하였다.

다문화 정책은 문화 다양성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캐나다의 고유한 정체성은 일반 개개인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함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 다양성은 문화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와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다르지만 함께하는 생활(Living together with differences)'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교육 특히, 문화예술교육에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캐나다 학교제도 이해

캐나다의 교육은 크게 정규 및 비정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규 교육으로는 취학 전 교육(Pre-school),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으로 분리된다. 유치원에서 중고등까지는 의무교육이나, 취학 전 교육과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규 교육(Non-formal education)은 지역 사회기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사설 교육기관, NGO 단체 및 종교 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캐나다 교육 제도의 중등교육은 한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며, 초등학교 이후의 7~12학년까지를 말한다(퀘벡주는 11학년, 온타리오주는 13학년까지). 7~9학년은 중학교, 10~12학년은 고등학교로 구분되며, 각자 진로에 따라 인문, 기술 또는 전문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각 교육구별 교육청에 의해 운영되며, 캐나다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약 5% 정도의 사립학교는 각 학교의 독자적인 교육 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캐나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따르게 되어있다.

캐나다의 모든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학생을 받아들이는 학교에서는 ESL과정(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을 운영하고 있다. 각 학교의 성격은 학교가 위치한 도시의 성격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학교 수준이 평준화된 편이므로 학교의 위치나 규모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에 걸쳐 빈부 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 빈곤지역이나 농산촌 지역은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이 열악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면에서도 많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양성에 기반을 둔 캐나다 예술교육의 상징
출처 : AOEU home page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캐나다의 학생들
출처 : FRASER home page



창의적인 포용성 수업의 결과물들
출처 : AOEU home page

캐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이해

캐나다의 문화예술교육은 교육과정 내 시간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 게다가 최근 재정 긴축으로 교육 재정이 삭감되어 문화 예술교육 분야는 많은 타격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 캐나다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등 선택권이 많으며, 학생들은 입시 압박 없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재량권이 매우 넓은 편이다.

따라서 이미 문화 다양성의 가치가 잘 훈련된 교사가 개인적으로 모든 교과 과정에 문화예술교육을 접목시켜 통합적인 교육 방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언어(영어, 불어, 또는 제 3외국어) 교과 시간에 음악과 연극, 미술을 연결해서 가르치기도 하며, 사회시간에 아프리카 역사를 배우면서 아프리카 전통음악을 소개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방과 후 클럽 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클럽 중에는 오케스트라, 연극, 회화, 붓글씨, 최근 케이팝 댄스(K-Pop Dance)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비정규 교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사설 교육기관, NGO 단체, 연극 단체, 극장, 무용 학교 및 종교 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정규 교사들과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술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진행할 때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해서 체험학습을 하기도 하고, 방학기간 동안 운영되는 캠프 학교나 방과 후 교육활동은 문화예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은 정규 교사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과반수는 운동 프로그램 중심이지만 약 30% 이상은 문화예술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모습

최근 미국에서의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캐나다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반아시아 혐오범죄가 증가하면서 언론은 문화 다양성 교육의 절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지난해 원주민 기숙학교(Residential Schools)에서 어린이 유골이 무려 800구가 발견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원주민 어린이들을 강제로 부모들과 격리, 그들의 고유 언어사용을 금지하고 이름도 영어식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기숙학교에서 원주민 학생들이 백인 교사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 대우와 고유문화 말살로 인해 아직도 원주민들은 빈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높은 범죄율과 자살률, 실업과 가정폭력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근래 들어 문화 다양성, 반 인종 차별 및 사회 정의에 대한 담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 교육기관에서도 원주민의 문화 이해를 더욱 섬세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 음악 교사가 원주민 음악, 악기를 소개하고 원주민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수업 중 원주민 음악 중에서 신성한 의식에서만 사용하는 음악을 틈이 있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해당 교육청에 원주민 출신 전문가를 수업의 조언자로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

토론토의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커티스 다데인 교사(트리니티드 출신)는 수업 시간에 레게 음악과 소카(Soca) 음악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저학년 어린이 교육에 카리브 연안 지역 문화를 소개해서 문화 다양성 교육뿐 아니라,

카리브 출신 어린이들의 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다데인 교사는 이를 한 인터뷰에서 “학습 과정에 반영된 자기 자신들을 볼 때, 진정으로 자신감을 얻으면서 성장한다.”라고 지적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음악 수업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케이팝 그룹 음악을 소개하거나, 인도계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인도의 전통음악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촉진하는 캐나다의 예술교육
출처 : AOEU home page

단지 도구가 아닌 삶의 태도인 캐나다 문화 다양성 문제

위의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 다양성 인식은 사회 전체 다양한 분야가 협동해서 이루어져야 성공적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 비정규 및 정규 교육 담당자와 정책 등이 일관성이 있게 노력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캐나다 사회가 문화 다양성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광범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문제점과 기회를 파악하여 시행하고 실천, 관리,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문 연구 조사팀을 조직하여 지역적 상황 특히, 교육전문가, 학생, 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캐나다는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사범대학에서도 문화 다양성 교육을 문화예술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포함해서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교생 실습 과정에도 이러한 분야가 반영되어 있으며, 인종이나 문화 다양성 인식을 하

는 것은 어린 나이일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그러한 효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공감 능력(empathy), 비판적 사고력, 정체성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캐나다는 나름의 독립적인 문화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직도 영국 식민지 역사의 잔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 문화를 표방하면서도 이제까지 교육과정 대부분은 서구적인 가치관과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오래된 관습과 인식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순탄하지 않다. 극우 세력 보수 단체의 반발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미 60년을 지속한 캐나다 문화 다양성 실천은 상당 기간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및 사진 출처

“Celebrating Pluralism: Art, Education, & Cultural Diversity”
by F. Graeme Chalmers, 1996

“Diversity Counts: Gender, Race, and Representation in Canadian Art Galleries” Anne Dymond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9

AOEU home page,
<https://theartofeducation.edu/2019/08/02/inclusivity-for-all-learners-in-the-art-room/>

FRASER home page,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school-enrolment-in-canada-part-1-fewer-canadian-parents-choosing-public-schools>

김호신

서울 출생으로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교육 연구를 하였으며, 영국에서는 국제 학교에서 근무 하였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사범대학에서 강의하며, 상호문화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문화 다양성과 평등과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교육, 반편견/차별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성과 포용성 기반 호주 문화예술 교육 사례와 새로운 이슈

박영희

이고 점진적인 교육 단계 전환, 마지막으로 학습 성취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다.

모든 학생과 가족들이 주립학교에서 환영받고, 존중받고, 소속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학교 공동체와 학생들 사이의 존중하는 관계를 복돋우며, 이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가시적인 다양성을 포용하도록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장벽을 해소하고, 다양한 학생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개발한다.

Education Queensland, 2021

들어가며

호주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문화예술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다.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초한 호주교육의 정책적 기초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보 성향의 노동당 출신 총리가 연이어 집권하면서 급진적 개선을 이루기 시작했다 (Australian Polity, 2011).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 성향의 자유당 출신 스콧 모리슨 총리가 집권 중인 현재도 그러한 기초는 분명 유효하다.

이 글은 포용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의 전반적인 교육정책 기초를 살펴보고, 호주 국립연극예술원과 퀸즐랜드 공과대학 창조학부의 관점 및 시스템의 사례를 통해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포용성과 다양성을 기조로 한 호주 교육정책

호주 교육정책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포용성의 범주 안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포용성은 ‘학교생활 모든 측면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정책 및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관행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Education Queensland, 2021).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 퀸즐랜드주 교육청의 포용적 교육정책의 원칙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요소들을 제시한다. 첫째, 시스템 전반적인 접근 둘째, 헌신적인 리더의 책임과 노력 셋째, 학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협동과 헌신 넷째, 학생, 가족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협력 다섯째, 다양성 가치 존중 여섯째, 자신감 있고 숙련된 인재 일곱째, 정체성, 문화적 배경, 신체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접근 가능한 학습 환경 여덟째, 효과적

호주 교육정책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정책은 각 주 교육 관련 법 조항과 연방정부의 「차별금지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 9개 학생 그룹 즉,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스트레이트 섬(Torres Strait Islander)출신 학생,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LGBTIQ 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학생, 농어촌 및 소외지역 출신 학생, 신체 장애가 있는 학생, 정신 건강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 마지막으로 월등한 학습 능력을 갖춘 영재 학생에 주목하고 있다. 법은 이들의 고유한 요구와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포용교육을 강조하는 호주의 교육
출처: Education Queensland 홈페이지

이러한 내용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 맥락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백인의 호주 원주민에 대한 침략과 식민 역사에 대한 인정과 이러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호주 토착민(Aboriginal)의 역사와 전통 및 그들의 고유문화를 존중하고,

원주민들이 주류 교육 제도 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호주 시민사회의 변화된 인식의 반영이다. 두 번째는 호주 전체 인구의 1/3 이상이 여러 문화와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라는 점이다. 호주 인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는데, 이는 호주 내 출생률 증가보다 해외 인구유입에 비롯되는데(남수중, 2021), 이민자 고유의 문화와 언어가 교육 현장에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성 소수자, 장애인, 저소득 계층, 소외지역 출신 등 사회 취약계층이 교육 제도 안에서 차별받거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의 반영이다.

사례1. 국립연극예술원(나이다)의 변화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정책은 대부분 대학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 때문에,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위한 전문예술교육은 각 대학의 고유한 학풍과 문화 그리고 운영 시스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호주 국립연극예술원(National Institution of Dramatic Art/NIDA)은 멜버른의 빅토리아 예술 대학(Victoria College of Art), 그리고 호주 서부 공연예술 아카데미(The Western Australian Academy of Performing Arts)와 함께 호주를 대표하는 연가공연예술 고등교육기관이다. 영화감독 바즈 루허만을 비롯해, 케이트 블란쳇, 멜 깁슨 등 세계적인 배우들을 배출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끊이지 않는 학내 인종 차별 및 소수자 배제와 괴롭힘 문제 등이 존재했다.

호주 원주민 출신,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색인종이나 이민자 출신, 성적 소수자 학생들이 캐스팅에서 배제당하거나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이 문제가 가시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는 유럽의 전통적 연극론, 연극론에 기반한 나이다의 보수적인 커리큘럼과 호주 문화예술계의 뿌리 깊은 백인 중심의 시스템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받은 호주국립예술원
출처: National Institution of Dramatic Art (NIDA) 홈페이지

나이다 출신의 배우이자 공연 창작자인 캔디 바우어스(Candy Bowers)는 이와 같은 커리큘럼과 학풍이 백인 남성 중심의 나이다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인종 차별, 성차별, 신체 차별 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French, 2019). 그리고 2020년 100여 명이 넘는 나이다 출신의 동문, 재학생 및 전직 교직원들이 나이다의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인종 차별”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비난하는 공동 서한에 서명하면서, 나이다의 예술교육 시스템 문제가 공론화되었다(Hannah Ryan, 2020).

이 일로 나이다의 CEO가 공개 사과를 했고, 최근 두 명의 새로운 이사직에 아시아계 여성 로렐 리(Lorelle Yee, Director of Partnerships and Engagement)와 흑인 여성 수잔 키부 카무소케(Susan Kibukamusoke, Director of People and Culture)가 임명되었다. 이는 호주 내에서 상당한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Snee, 2021). 또한 2021년 수정 발표된 나이다의 차별 방지 및 괴롭힘 방지 정책과 나이다 학생 현장을 보면,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포용적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예술 창작의 자유와 도전정신이 약화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표방하였다. 앞으로 나이다가 공연예술가 양성소라는 명성과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사회와 공동체에 존재하는 사회, 문화 및 정치사, 신념, 견해 및 가치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표현하는 텍스트와 연극, 아이디어로 작업한다. 이것은 예술가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체계 또는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감각에 감정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에 개방적 자세로 기꺼이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National Institute of Dramatic Art, 2021

사례 2. 문화 다양성 토대에 대한 퀸즐랜드 공과대학의 사례

브리즈번에 있는 퀸즐랜드 공과대학(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QUT)의 창조학부는 호주 내 다른 예술대학에 비해 젊고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배경에는 비단 QUT의 짧은 역사 때문만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철학과 정책, 비전 그리고 이를 반영한 개혁적인 커리큘럼 등이 있다. QUT의 다양성과 포용성 비전 조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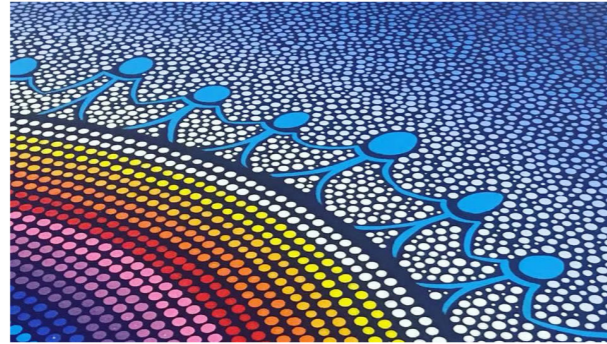
QUT의 6개 청사진은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데 전념한다. 우리는 학습과 교육에 있어 학습자가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 대한 지식과 존중을 가지고 지역사회 및 글로벌 문화적 맥락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한다.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2021

이러한 학내 기조와 교육 정책은 학내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교과목 디자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창조학부의 연극, 연기학과,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들 중심의 <사회적 영향을 위한 창의적 공간조성 연구그룹 Research Group Creative Placemaking for Social Impact>이 좋은 예다. 이 연구그룹은 지역사회의 회복력에 문화, 예술, 장소 기반의 창의성의 핵심적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한국·호주 간 장애인 커뮤니티 예술 창작 프로젝트, 소외지역에서 예술의 사회적 영향 모델 연구, 장애인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호주 내 박물관 및 전시장과의 공동 연구,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난민 청소년들을 위한 포용적 대안 학교 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2019).

이러한 창조학부의 연구 학풍은 호주 내 다른 대학의 공연예술, 연기 학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교과 디자인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표적인 과목 중 하나로 연극, 연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극 훈련 Diverse Theatre Practice'를 꼽을 수 있다. 이 과목은 다양한 문화적·정치적·사회적·언어적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과 협업할 때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과 이에 필요한 협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호주의 문화예술정책과 관련 프로토콜을 살피고, 호주 원주민 연극, 페미니즘 연극, 장애인 연극, 퀴어 연극, 다양한 문화·언어적 배경의 연극 등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함께 다룬다(Hadley, 2020). 이 과목을 디자인한 브리 해이들리 교수(Prof. Bree Hadley)는 장애인 예술가이자, 예술교육의 다양성, 포용성, 접근성 연구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은 학자이기도 하다.

짧은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퀸즐랜드 공과대학의 창조학부 특히, 연기학과가 퀸즐랜드주를 넘어 호주 전역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대학의 정책과 비전, 이를 반영한 커리큘럼 디자인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을 적극적으로 임용해 온 대학의 노력이 만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구현하는 노력이 중요성이 높아지는 예술영역
출처: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

팬데믹, 그리고 위기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지금까지 호주의 교육정책의 중심 기조를 살펴보고, 호주의 공연예술, 연기 전문교육대학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은 문화예술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호주 내 문화예술 관련 대학들과 학부들은 예상치 못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작년 한 해 모나쉬 대학교, 머독 대학교, 라트룸 대학교, 찰스스튜어트 대학교 그리고 뉴캐슬 대학교의 연극학부가 폐쇄되었다 (Meyrick, 2021). 호주의 37개 공립대학 중 약 3분의 2가 공연예술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창작 및 이론 과목 다수가 폐강되는 추세다.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금 폐쇄적 자국중심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호주의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비단 호주 문화예술교육 현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의 확장을 위해 지속해온 호주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노력이 퇴보하지 않고, 포스트 팬데믹의 시대에 예상되는 여러 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절실하다. 호주의 전문 문화예술교육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지 아니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게 될지 앞으로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Australian Polity. (2011). Labor's education revolution: an evaluation. 1(5).
 Education Queensland. (2021). Inclusive education policy. Education Queensland. <https://ppr.qed.qld.gov.au/attachment/inclusive-education-policy.pdf>
 French, S. (2019). Intersectionality and the Australian theatre industry: in conversation with Candy Bowers. *Australasian Drama Studies*(75), 46-71, 382.
 Hadley, B. (2020). KTB120 Diverse Theatre Practice. QUT. Retrieved 22 October from <https://www.qut.edu.au/study/unit?unitCode=KTB120>
 Hannah Ryan. (2020, 17 June, 2020). Alumni accuse NIDA of 'systemic and institutionalised racism'. *The Sydney Morning Herald*. <https://www.smh.com.au/culture/theatre/alumni-accuse-nida-of-systemic-and-institutionalised-racism-20200617-p553jz.html>
 Meyrick, J. (2021). Drama in hell. *The Monthly*. <https://www.themonthly.com.au/issue/2021/october/1633010400/julian-meyrick/drama-hell#mtr>
 National Institute of Dramatic Art. (2021). NIDA Student Learning Charter. NIDA. Retrieved 22 October, 2021 from https://www.nida.edu.au/_data/assets/pdf_file/0003/66171/NIDA_Student_handbook_2021_D3-FINAL.PDF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2019). Creative Placemaking for Social Impact. QUT. Retrieved 22 October from <https://research.qut.edu.au/cpfsi/>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2021). Diverse perspectives and inclusion. QUT. Retrieved 22 Oct, 2021 from <https://qutvirtual4.qut.edu.au/group/staff/teaching/learning-teaching-strategy/qut-learner-experience/diverse-perspectives-and-inclusion>
 Snee, P. J. (2021, 2 August, 2021). NIDA strengthens Executive with new appointments. *Aussie Theatre*. <https://aussietheatre.com.au/news/nida-strengthens-executive-with-new-appointments>
 남수중. (2021, 21 Jan, 2021). 호주의 인구 및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시사점. *The Public News*. <http://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83>

박영희

배우, 연출가, 극작가, 예술활동가, 공연예술교육가로 25년간 호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 해외 예술가들과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15년 넘게 호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다문화 복합학문 이중언어 공연창작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호 예술가 콜렉티브 컴퍼니 배드 멤버이며, 퀸즐랜드 영화진흥회와 호주 공영방송의 제작 지원으로 컴퍼니 배드의 음악극 <지하 Underground>의 영화화 작업에 참여 중이다. 2018년부터 안전하고 포용적인 연극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한국공연예술 자치규약(KTS)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공과대학 창조 학부에서 석사과정을 마무리 중이다.

프랑스의 예술사 교육 - 역사와 예술의 입체적 결합

목수정

들어가는 말

2019년부터, 프랑스에서는 대대적인 교육과정 개혁이 단행되었다. 고등학교에 존재하던 계열(인문계, 자연계, 사회경제계) 구분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고교 2학년 때부터 기본 과목(불어, 역사, 영어, 제2외국어, 체육, 과학) 외에 3개의 스페셜리티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으며, 고3이 되면 2개로 압축되고 강화된 스페셜리티를 고를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은 학교 예술교육에서도 변화를 가져와, 체육을 제외한 모든 예능 과목은 스페셜리티 혹은 옵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예술계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페셜리티는 조형예술, 영화, 무용, 예술사, 음악, 연극, 서커스 예술 등 모두 7개 과목이다. 모든 고등학교가 이 7개의 스페셜리티 과목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학교가 2~3개 정도 예술 과목을 제공한다. 다니는 학교에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이 없을 때, 학생들은 그 과목을 제공하는 학교를 골라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수요일 오후는 옵션 과목을 듣는 아이들을 위해 비워둔 시간이며, 많은 아이가 이때 파리를 가로지르며 대이동을 한다. 거기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며, 새로운 친구 커뮤니티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는 학교가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을 사교육 대신, 공교육 내에서 최대한 해결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바칼로레아의 개편과도 연동된다. 모든 기본 과목 시험을 봤던 과거 시스템과 달리, 개편된 바칼로레아는 철학(필기, 구두시험) 외에 자신이 최종 선택한 2개의 스페셜리티에 대한 시험과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구두 발표(20분)로 구성된다. 고교 2학년년부터 학생 각자의 성향과 관심에 맞추어 학습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개편은 개인 취향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편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일찍부터 제한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 새로운 시도가

가져온 변화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내리기엔 아직 성급한 시기이나, 관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갖게 된 아이의 모습이 한결 밝아졌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고교 2학년에 올라간 딸이 스페셜리티로 선택한 3개의 과목(영문학, 예술사, 인문학/철학)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술사여서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예술사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와 예술이 만나는 다각적 예술사 수업

일주일에 4시간 수업(2시간씩, 2번)으로 이뤄지는 예술사 교육의 가장 놀라운 점은 강사진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술교사 뿐 아니라, 음악, 불어, 역사교사 등으로 이뤄진 강사진은 각자의 관점에서 예술과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들을 짚어주는 역할을 한다. 엘렌 부셰 고등학교(Lycée Hélène Boucher, 1938년 설립) 2학년의 전체 270명의 학생 가운데 약 14%인 37명이 예술사를 스페셜리티로선택했고, 이들은 2개 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듣는다.

9월 시작된 수업 첫날은 자신들이 다니는 엘렌 부셰 고교 구석 구석을 미술교사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합리주의 건축양식(Rationalisme)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자 1930년대 아르데코 양식을 띤 학교 건축에 어떤 재료들이 쓰였고, 어떤 건축양식이 어떤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지, 회랑과 창, 벽 장식에서는 어떤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학교를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어진 수업에서 아이들은 교사와 함께 대리석(Marbre)이라는 하나의 재료를 중심축 삼아 예술사를 훑어 내려간다. 프랑스의 학제는 3개월씩 3학기로 구성되는데, 각 교육청은 매 학기 예술사를 관통하는 한 가지 테마를 제시한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건축에서부터 종교가 삶의 중심이 된 중세 시대에 들어서서 앞다퉈 벌어진 웅장한 교회 건축 그리고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에서 꽃피웠던 르네상스 시대, 절대군주 루이 14세 그리고, 혁명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리석이란 재료가 예술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탐구한다.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대리석이 부침을 겪으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왔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배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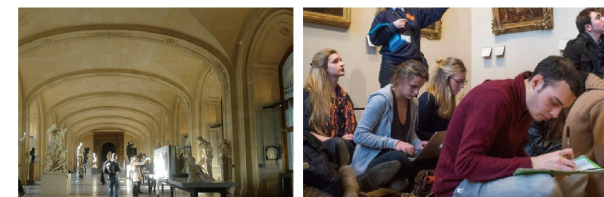
프랑스의 첫 계몽 군주로 꼽히는 프랑수아 1세는 정복 전쟁 중 피렌체, 베니스 등에서 아름다운 대리석 건축물과 조각품들에 매료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다수의 이탈리아 예술가, 건축가들을 프랑스로 데려와 국가가 예술가의 메세나가 되는 사례를 만들면서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를 그들과 함께 연

다. 그런가 하면 절대군주 루이 14세는 대리석 찬미자였다. 윤기 흐르는 매끄러움과 웅장함, 단단함은 절대권력을 치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봤고,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온통 대리석으로 장식하고자 했다. 값비싼 재료인 대리석에 대한 왕의 사랑은 국고를 탕진하게 했고, 당대의 저명한 작가였던 라퐁텐은 이러한 루이 14세의 대리석에 대한 집착을 조롱하는 시를 남긴다.

아이들은 그리스 신화와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리석 건축물과 예술작품들에 대해 불어교사로부터 듣고, 모차르트의 오페라와 얽힌 사연은 음악교사로부터, 미켈란젤로나 로댕같이 대리석으로 작업한 예술가들의 생애와 작업에 대해서는 미술교사로부터 듣는다.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리석이란 재료의 역할에 대해서 역사교사로부터 들으며 예술가들과 재료, 시대가 엮어간 역사를 더듬어 나간다.

매달, 박물관 견학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접 박물관에 가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접하는 시간을 갖는다. 9월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미켈란젤로실을 방문하여 그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몇몇 작품들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듣기도 했다. 10월에는 로댕 박물관에 가서 로댕과 까미유 콜로델의 작품을 감상하고, 각각의 작품에 담긴 에피소드와 작품이 지니던 시대적 상징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작품을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료를 중심으로 역사를 타고 내려오며 여러 작품과 여러 작가에 대해 배우지만, 일부 집중하여 탐구하는 작가가 있고, 그 작가를 중심으로 박물관같은 문화공간 방문이 결정된다.



(좌)루브르 박물관의 미켈란젤로실
(우)박물관을 관람한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하는 모습

각자 선택한 작품에 대한 발표

프랑스 학교 교육은 과목을 막론하고 상당 시간을 학생들의 발표를 위해 할애한다. 학생이 정보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자기 생각과 관점을 발표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활동한다. 개편된 바칼로레아에서 집중 주제 발표(Grand Oral)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알고 있는 바를 직접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예술사 수업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학생이 흥미를 느끼는 <재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선택하여, 재료가 갖는 매력과 그 매력을 작품으로 잘 구현한 예술가, 그 예술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약 10분간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의 재료라는 필터를 통해 작품을 관찰하는 시선을 습득하게 되며, 자신의 직관과 감수성이 발견해 낸 바를 구체적 언어와 시각적 수단을 통해 설득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한 학생은, 마침 지난 9월 중 미디어의 큰 주목을 받으며 전시되었던 작품, 크리스토폴와 잔 클로드의 작업, 천으로 둘러싸인 파리의 개선문을 “천”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좌) 2021년 9월 전시된 크리스토폴와 잔 클로드의 천으로 둘러 싸인 개선문,
(우) 피노 재단에 전시되어 있는 어스 피처의 밀랍 작업 <무제> (2011-2020)

다른 학생들도 다양한 소재를 선택했다. 풍피두 센터에 전시 중인 루이즈 부르주아의 “나무”로 만든 방을 소개했고, 현대미술 명소 피노 재단(Pinault Fondation)에 전시 중인 어스 피처의 “밀랍”을 소재로 한 조각을 소개하였으며, 바르셀로나 구엘 공원에 있는 가우디의 살라망드르 조각을 택하여 가우디와 “세라믹”이라는 소재가 갖는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신에게 각별한 인상을 남긴 작품, 예술가를 발굴, 소개한 예도 있었는데, 독일 출신의 미니멀리스트 에바 헤세가 “라텍스(Latex)”로 구현해낸 설치 작업이 그런 예다.

맺는말



(상) 라텍스와 유리섬유로 설치미술을 해온 독일 작가 예바 헤세에 대한 소개와
(하)그녀의 작품 Right After(1969)

아이들이 소개한 작가와 작업은, 동시대 작가이거나 적어도 20세기 작가인 경우가 많았다. 예술사를 스페셜리티로 꼽은 만큼, 이미 예술에 대한 자발적 관심이 있던 아이들은 각자의 안목과 관심사를 드러내며, 서로의 안목과 시야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대리석이라는 고전적 재료에서 벗어나, 무궁무진한 일상의 재료를 통해 예술적 초월의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이들은 예술사 시간 중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을 발표 시간으로 꼽기도 했는데, 이는 역사 속 신화가 된 과거의 예술작품보다 동시대의 고민과 호흡을 담고 있는 현대 작품에서 더 큰 영향과 자극을 받기 때문인 듯하다.

교육부는 고교 2학년 예술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할 내용을 바를 밝히고 있다.

- 1) 재료, 예술 기법, 형태
- 2) 예술가 : 예술가로의 성장, 교육과정, 사회적 인정
- 3) 장소 : 박물관, 축제, 전시장, 공연장, 시네마테크 등
- 4) 예술의 수용 : 관객의 취향, 비평
- 5) 예술의 경제적 가치, 예술 시장, 문화 산업
- 6) 예술작품 유통과 예술적 교류

이를 위해 적어도 한 해 동안 한 점 이상의 그림, 조각, 사진, 설치미술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건축물을 견학하여 검토하며, 적어도 1회 이상의 공연장(무용, 연극, 오페라 등)을 관람하고 작품을 감상하며 집단 혹은 개인이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공교육의 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저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21세기 초부터 지속된 현상이며, 마크롱 정부 들어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모든 부처 중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진 교육부에 대해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긴축”이다. 그런 와중에 초유의 교육 제도 개편이 이뤄졌고, 많은 이들은 이러한 개편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염려해왔다. 그러나 하나의 사례로 살펴본 예술사 과목은, 예술이라는 문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과 방식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파리라는 도시가 가진 풍요로운 예술적, 문화적 여건이 그 방식을 넉넉히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이나, 5명의 교사가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가며 예술사를 입체적으로 가르치는 노력과 협력 속에 더 큰 비결이 있지 않았나 싶다. 예술사에 대한 이해는 예술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예술영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다원적으로 이해하는 폭을 갖고자 하는 모두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과목이다. 17,000년 전 라스코 동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해온 인류의 삶을 추적하고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이 과목은 지식뿐 아니라, 감수성을 개발하고, 세상을 향한 시야를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수정

고려대 노문과, 파리 8대학 공연예술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동숭아트센터, 국립발레단에서 공연기획자로, 민주노동당에서 문화정책연구원으로 일했으며, 2008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며, 작가, 번역가, 문화정책 연구자,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 『문화는 정치다』 『에코사이드』의 다수, 저서로 『프랑스의 생활 좌파들』 『칼리의 프랑스 학교 이야기』 외 다수가 있다.

2021 해외 문화예술교육 기획리포트 1호
문화다양성과 문화예술교육의 미묘한 관계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협력팀
운영 문화디자인자리

홈페이지 www.arte.or.kr
라이브러리 lib.arte.or.kr
문의 02-6209-1353 (담당자)

등록번호 KACES-2151-C00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
하면 비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금지됩니다.

